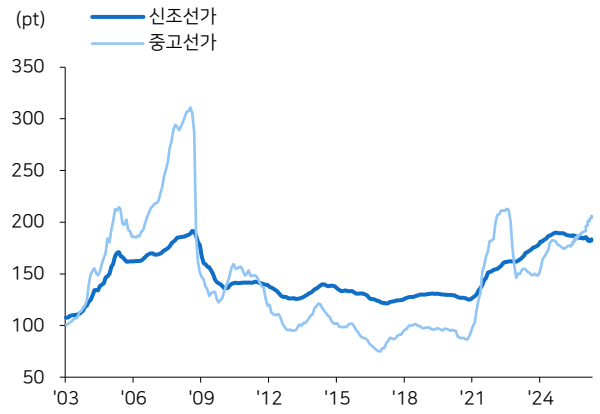
2026. 4. 29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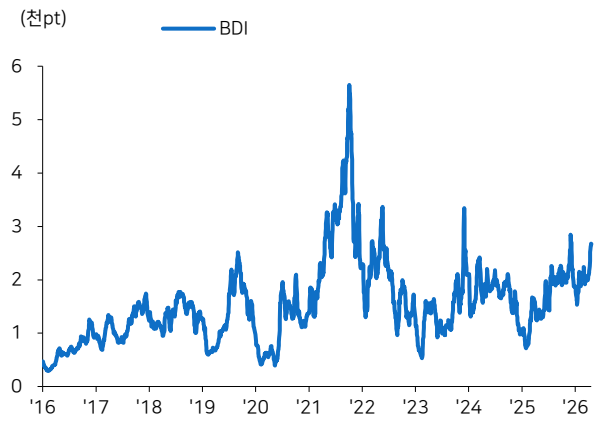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3.4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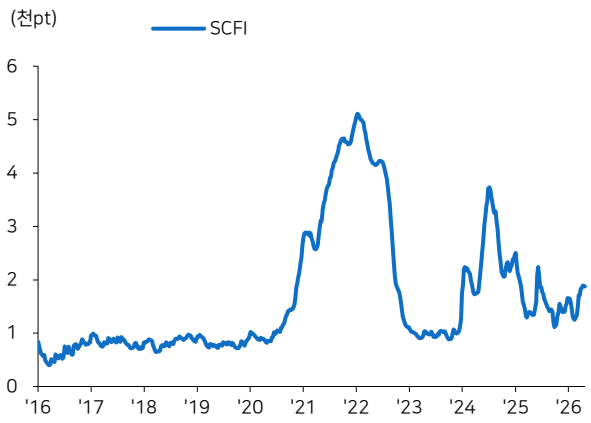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05.0달러 (+6.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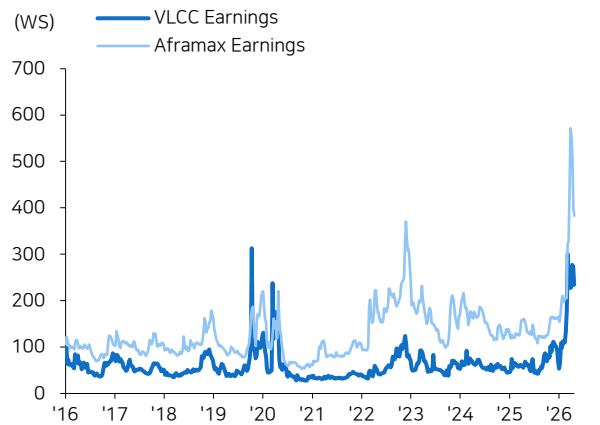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66.0p (+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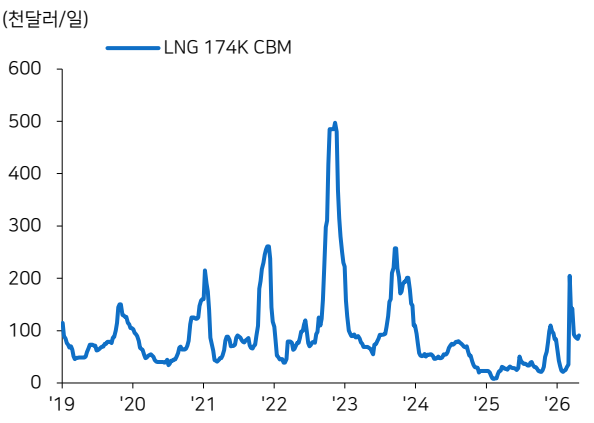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75.3(-11.3 WoW)



VLCC Spot Rate 234.1WS (-38.8p WoW)



LNG Spot 운임 91.0천달러 (+6.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정기선 HD 현대 회장, 美 선급협회 수장과 '조선업 미래 재편' 청사진 공유 (더구루) https://zrr.kr/JbtgSc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존 맥도널드 미국 선급협회(ABS) 회장과 만나 '미래 첨단 조선소(FOS)' 구축의 핵심인 디지털 스레드 구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력을 통해 HD현대는 선박의 설계부터 생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의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Siemens 및 NVIDIA와의 파트너십에 이어 ABS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전해짐. HD현대는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향상시키고 건조 기간을 30% 단축하는 지능형 자율 운영 조선소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차세대 생산 · 설계 플랫폼을 국내외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가격 차별금지' 등 한화오션 기업결합 시정조치 3 년 연장 (뉴시스) https://zrr.kr/VbIOeM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던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이번 조치는 한화오션이 함정 시장에서 유력한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주요 함정 부품 시장에서도 한화 계열사들이 여전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의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는 '구매선 봉쇄 효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고 전해짐. 이에 따라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의 차별 금지 및 기술정보 요청 거절 금지 등의 의무가 유지되나, 경쟁 우려가 해소된 함정 피아식별장비 등 2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다고 알려짐.

울산시·HD 현대중공업,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맞손' (연합뉴스) https://zrr.kr/rJxGxu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은 기술 난도가 높아 해외 의존도가 컸던 선박용 액화가스 펌프 등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해짐. 울산시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HD현대중공업은 수요기업으로서 기술 실증과 구매 확약을 통해 지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화단지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HII Builds on Submarine MUM-T Success with New Pentagon Deal (Naval News) https://zrr.kr/BG3Jy3

미국 국방혁신단(DIU)이 HII(Huntington Ingalls Industries)와 잠수함용 어뢰 발사관 이송 및 회수(TTLR)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다고 보도됨. 해당 시스템은 잠수함 내에서 HII의 REMUS 무인 잠수정(UUV)을 잠수사의 도움 없이 자율적으로 전개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유 · 무인 복합 체계(MUM-T)의 작전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힐 전망으로 전해짐. 이미 2025년 버지니아급 잠수함인 USS Delaware호에서 REMUS 600의 자율 회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HII는, 이번 계약을 통해 차세대 REMUS 620 등 첨단 무인 체계를 실전 배치 단계로 끌어올리며 잠수함 작전의 은밀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IMO chief urges nations to bridge gaps and clinch shipping decarbonisation deal (TradeWinds) https://zrr.kr/bUehPm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런던에서 열린 제8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4)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선대 탈탄소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고 보도됨. 도밍게스 사무총장에 따르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전략은 유지하되, 지난 1년 사이 미국-사우디 동맹의 반대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위기로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진 변화된 세계 정세를 직시해야 한다고 전해짐. 현재 각국은 탄소 부담금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으며,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등 주요 기판국과 일본이 기금안 폐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지역별 규제가 파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알려짐.

Dirty tanker newbuilding surge spills into the second quarter (TradeWinds) https://zrr.kr/8edx3P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조선소 건조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주들이 신조 발주를 강행하면서 1분기에만 약 523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도됨. 특히 대형 원유 운반선인 VLCC와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에 전체 투자 자본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으며, 즉시 투입 가능한 선박을 확보하려는 선주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신조가 인덱스가 10년 평균보다 22%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짐. 그리스 선주들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2척을 발주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조선소와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조선소 모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견조한 수주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